

장수 양수발전소 성공 유치 '맞손'

장수군-장수군의회-한국동서발전,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주)과 장수군 양수 발전 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장수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파크 조성 및 관광자원화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수양수발전소는 기존 저수지를 활용하는 덕산 용림제부터 번암 통과저수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검토중이며, 500MW급의 발전 용량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자되어 2027년 12월 최종 선정되면 2038년까지 12년 간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남는 전력으로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발전 시 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전원이다.

장수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100년 향토기업의 유치를



장수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주)과 장수군 양수 발전 사업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 이어져 약 1,100억 원의 지방세수 및 약 5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증가, 일자리 창출, 상주·생활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등 약 1조 9,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활용한 에너지 체험시설과 관광자원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될 수 있어 지역 전반에 활

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선정 과정은 2027년 기후 에너지환경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면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된 장수군의 유치신청서를 근거로 기후부에 건설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는 2027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개최

봄철 대표 건강음료인 고로쇠 수액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주천면 운일안반달입 삼거리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청정 자연 속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진안의 대표 봄 축제다. 올해 축제는 자연·체험·건강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봄날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분위기를 띄우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고로쇠 수액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출발! 고로쇠 숲탐험대'와 '고로쇠 고원길 걷기 프

로그램은 운장산의 청정 숲길을 따라 걸으며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로쇠 고추장 만들기, 고로쇠 스템프투어, 고로쇠 달고나 만들기, 댄스, 밴드, 마술, 버블쇼 등 공연과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돼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져 운장산의 웅장한 자연과 고로쇠 수액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봄철 맞아 나무 전시판매장 개장

장수군산림조합이 봄철을 맞아 지역 주민과 임업인을 위한 나무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

장수군산림조합은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만반의 광장(1479-1)에서 나무 전시판매장을 무휴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이번 전시판매장은 단순 판매를 넘어 산림경영지도원을 현장에 배치해 나무 식재 방법과 관리 요령 등을 직접 상담해 주는 전문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감, 밤, 대추 등 유실수를 비롯해 연산홍·자산홍 등 철쭉류 관목, 각종 파수와 초화류, 비료, 잔디 등 판매 품목도 다양하다.



또한 산림조합은 지역 주민을 위한 '나무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무 심기 문화 확산과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무주읍 앞섬마을에 tvN 예능 프로그램 '보검 매직컬'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보검 매직컬' 촬영지 특수효과

무주군, 앞섬마을 관광객 발길 이어져... 주변 상권도 활기

무주군 무주읍 앞섬마을에 tvN 예능 프로그램 '보검 매직컬'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보검 매직컬'이 첫 방송된 이후 촬영지인 앞섬마을에는 평일 하루 평균 200여 명, 주말에는 500명 이상이 방문하며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다.

과를 체험하고 있다. 앞섬마을 인근 식당들은 어죽을 대표 메뉴로 내세우며 겨울철 비수기에 도 손님이 이어지는 등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무주군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촬영지 인근에 약 400평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임시 화장실도 설치했다.

방송에서는 초보 이발사로 등장한 배우 박보검과 네일 아티스트 역할의 배우 이상이, 어묵과 붕어빵을 준비하는 배우 광동연의 모습이 담기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5분 방송되며 시청률 상승과 함께 촬영지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촬영지인 '보검매직컬 미용실(무주읍 앞섬길 14-5)'은 방송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미용실 내부와 소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있다.

마을 주변 식당들도 방문객 증가 효

또한 '금강 맘 새김길', '복숭아 꽃길', '앞섬 체험센터', '향로산', '반딧배우 박물관'과 네일 아티스트 역할의 배우 이상이, 어묵과 붕어빵을 준비하는 배우 광동연의 모습이 담기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섬마을은 금강 상류 지역에 위치해 무주읍에서 접근성이 좋은 마을로 알려져 있다.

봄철에는 복숭아꽃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에는 보양식 어죽과 반딧불 복숭아 특산물로 꼽힌다.

또한 물놀이 지형으로 형성된 마을은 '육지의 섬'으로도 불리며 앞섬마을과 후도교를 잇는 2km 구간 '금강 맘 새김길'에서는 금강과 산, 복숭아 과수원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국회 찾아 '진안형 기본소득' 국비 지원 요청

진안군은 12일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경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 계자들은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한정에·안호영·한병도·여기구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 자리에서 진안군은 진안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공익을 위해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 약 2만5,000명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총 20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전역 군비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지자체 공모 선정

진안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전국 1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정비물량을 배정하였고, 사업참여 요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10개 지자체를 선발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20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진안군은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필요성과 정비사업 유지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정비 계획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고,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진안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진안군청을 중심으로 진안읍 연구동 마을과 진안초등학교 뒤편부터 로터리, 진안시장 주변 등에 케이블 정비사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특히, 공중케이블 난립, 처짐, 불량부착물 등이 심각한 진전주 및 통진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케이블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안전 기원제·안전보건 캠페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지난 11일 덕유산 향적봉에서 2026년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무주군, 무주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기원제를 열고, 이와 함께 산림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안전보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리소 직원 일동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산림분야 무재해를 다짐하며 안전결의문 낭독 및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캠페인도 가졌다.

또한 올해 새로 바뀌는 산림행정 규제개혁 관련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한 사항(임업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임업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및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추가 허용) 등 홍보도 겸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